

당뇨환자의 사상체질에 따른 임상 연구

정성일* · 김영우* · 정원교* · 김종원* · 김정인** · 임화재***

Abstract

A Clinical Study about the Diabetes Mellitus Patients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Jung Sung-il* · Kim yung-woo* · Jung Won-gyo* · Kim Jong-weon* · Kim Jung-in** ·
Lim hwa-jae***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 School of Food Science,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Dong-eui University

1. **Purpose** : The research is study to classify the clinical symptoms of the diabetes mellitus according of the Sasang constitution. that is used to treat and manage the diabetics.

2. **Method** : We collected 69 patients with diabetes who were diagnosed Sasang constitution at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Dongeui Oriental Hospital during 1 year from August. 2000 to July. 2001. and then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linical symptoms of the diabetics according of the Sasang constitution

3. Result and conclusion

We investigated the clinical symptoms of the diabetes according of the Sasang constitution to find relationship between the symptoms and the Sasang constitutions. The result of it, we found that it is different between the symptoms according of the Sasang constitution in first symptoms of the diabetes mellitus, weight, appetite, urine and drinking water. Therefore we have found that it is possibility to classify the clinical symptoms of the diabetes mellitus patients according of the Sasang constitution.

Key word : Sasang constitution, diabetes mellitus, the clinical symptoms of the diabetes mellitus

1. 서론

韓國 고유의 醫學이자 體質醫學인 四象醫學은 그

장부대소에 따라 太陽人,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의 4 가지 體質을 설정하고 각 體質에 대한 生理, 病理, 診斷, 鑑別法, 治療의 藥物 체질에 따른 食事관리에 이

* 동의대학교 한의과 대학 사상체질과

** 인제대학교 식품과학부 부교수

*** 동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정성일 주소)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4동 산45-1번지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과 (614-710)

Tel)051-850-8641 E-mail)amua2000@hanmail.net

※ 이 논문은 2000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된 논문임.

르기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서 臨床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醫學理論이라 할 수 있다.¹⁾

당뇨는 고혈압 증풍, 심장병, 암 등과 같은 성인 병으로, 이러한 질병의 특징은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으며 음식, 생활습관 등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현대의학에서도 성인병은 치료의 대상이 아닌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²⁾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동일한 질병이라도 각 개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는 사상의학적 치료방식은 성인병 관리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³⁾

현재까지의 消渴 및 糖尿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학에서는 糖尿病과 상관한 消渴에 대한 문헌연구 고찰과⁴⁾⁵⁾⁶⁾⁷⁾⁸⁾⁹⁾¹⁰⁾, 당뇨병성 神經症 치험에¹¹⁾ 消渴症의 치험에¹²⁾, 白虎湯 加味六味地黃湯 黃芪湯 加味方 등의 한약 또는 한약재의 동물실험에 대한 항당뇨 효능에 대한 연구¹³⁾¹⁴⁾¹⁵⁾ 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사상의학에서는 사상의학적으로 당뇨의 병인, 임상증상 및 치료를 설명한 연구¹⁶⁾, 중의학과와의 비교연구¹⁷⁾, 조의학변증논치의 연구토론³⁾, 白虎湯, 忍冬藤地骨皮湯, 涼膈散火湯 등의 임상실험연구¹⁸⁾¹⁹⁾²⁰⁾, 당뇨병 치험예에 관한 연구²¹⁾, 체질별식품표에 근거한 당뇨식단에 관한 연구²²⁾, 심신의학적 측면에 대한 고찰²³⁾이 있었다.

당뇨병은 그 임상증상이 다양하나 서양의학에서는 인슐린의존에 따라 1형 2형을 위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당뇨병의 유형을 사상체질에 따라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본 저자는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증상에 관한 설문지를 실시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당뇨병유형분류의 가능성을 찾고 나아가서 사상체질에 따른 치료 및 관리법을 개발하는 기초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몇 가지 지견을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한방사상체질의학과에 來院한 제2형 당뇨병 환자 6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집요건

은 다음과 같다.

대상군은 첫째, 70세 미만의 성인으로 현재 인슐린주사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자, 둘째, 무작위 혈당치가 200mg/dl 이상에 해당하면서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세가 있는 자, 셋째, 공복시 혈당수치가 120mmHg(모세혈관 전혈)이상이면서 경구당부하 검사상 당뇨병으로 진단된 자로 한다.

비대상군으로는 현재 인슐린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 자, 급성감염질환, 주요수술을 받은환자, 심근경색, 심부전증, 만성신부전, 임신, 조혈기관의 질병, 알콜 중독, 간효소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 증가된 환자,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8mg/dl 이상인 환자, 다른 연구에 참여 중인 환자는 제외하기로 하여 연구대상환자 69명을 엄선하였다.

2. 연구방법

- 1) 歷代 韓醫書 및 「東醫壽世保元」에 기재된 消渴病에 대한 원인, 증상, 유형별 특징을 현대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당뇨병 유형 구분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한다.
- 2) 糖尿病으로 진단(제2형 당뇨병환자로 제한)받은 환자 69명을 대상군으로 하여 사상체질 설문지 2종(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과²⁴⁾²⁵⁾,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²⁶⁾²⁷⁾)으로 체질진단하고, 당뇨병 임상증상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3) 이상의 설문지 결과를 통계분석 처리하여 四象體質과 당뇨병 환자의 임상증상간의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결론을 도출해낸다.

3. 통계분석 방법

체질과 각 문항사이 간의 연관성 존재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비모수 통계 분석방법중의 하나인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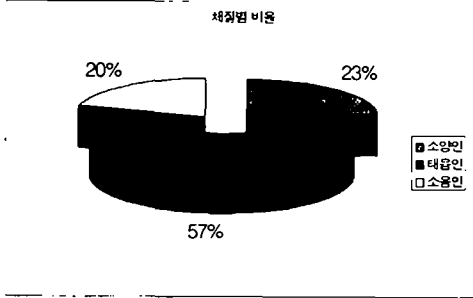
실험결과와 통계처리는 통계처리 Package인 SAS/pc+를 사용하였으며, P값이 최소 0.05이하의 값을 보이는 경우 유의한 차이의 한계로 삼았다.

III. 조사결과

1. 임상증상진단 설문지

1) 체질비

당뇨병 환자 총 69명을 대상으로 사상체질분류를 시행한 결과 체질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太陰人이 39명(56.52%)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少陽人이 16명(23.19%), 少陰人은 14명(20.29%)을 차지하고 있다.



남녀 비율은 少陽人은 남 13명(81.25%), 여 3명(18.75%)이고, 太陰人은 남 24명(61.54%), 여(38.46%)이고, 少陰人은 남 8명(57.14%), 여 6명(42.86%)이다(Table 1.).

Table 1. 남녀 비율 (단위 : 명)

| | 소양 | 태음 | 소음 |
|-------|-----------------|-----------------|----------------|
| 남자 | 13명 (81.25%) | 24명 (61.54%) | 8명 (57.14%) |
| 여자 | 3명 (18.75%) | 15명 (38.46%) | 6명 (42.86%) |
| Total | 16 | 39 | 14 |

2) 당뇨의 임상증상.

① 당뇨병 발생 시기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대부분이 40~59세(49명, 77.78%)에서 발생하였으며, 少陽人(11명, 68.75%)과 少陰人(9명, 64.29%)이 다른 질환이나 정기건강검진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가 알게 된 것에 비하여 太陰人(14명, 37.84%)은 주로 자각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② 당뇨병 자각 증상

당뇨 초기자각증상 유무에 있어서는 57명(82.61%)에 있어서 있었다고 대답하였으며, 체질별로는 少陽人은 14명(87.50%), 太陰人은 31명(79.49%), 少陰人은 12명(85.71%)으로 대부분 초기증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Table 15 초기 자각증상 유무 (단위 : 명수)

| | 예 | 아니오 | Total |
|-------|----------------|---------------|-------|
| 소양 | 14 (87.50%) | 2 (12.50%) | 16 |
| 태음 | 31 (79.49%) | 8 (20.51%) | 39 |
| 소음 | 12 (85.71%) | 2 (14.29%) | 14 |
| Total | 57 | 12 | 69 |

③ 당뇨 초기증상

당뇨 초기 증상에 있어서는 '④ 피로감 혹은 전신 권태감'(31건, 44.93%), '① 잦은 갈증'(28건, 40.58%), '⑦ 팔이나 다리의 저림 및 감각저하'(22건, 31.88%), '③ 多尿'(21건, %), '② 음수량증가'(20건, %)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질별로는 少陽人은 ①,④,⑦,②, 太陰人은 ④,①,②,③, 少陰人은 ④,⑦,①,③의 비율이 높

Table 14 당뇨병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단위: 명수)

| | 29~39세 | 40~49세 | 50~59세 | 60~65세 | Total |
|-------|---------------|----------------|----------------|---------------|--------------|
| 소양 | 1 (6.67%) | 8 (53.33%) | 5 (33.33%) | 1 (6.67%) | 15 (100%) |
| 태음 | 3 (8.82%) | 13 (38.24%) | 13 (38.24%) | 5 (14.71%) | 34 (100%) |
| 소음 | 3 (21.43%) | 5 (35.71%) | 5 (35.71%) | 1 (7.14%) | 14 (100%) |
| Total | 7 | 26 | 23 | 7 | 63 |

(무응답 : 6명)

Table 16 초기 자각증상

(단위 : 명)

| | 少陽人 | 太陰人 | 少陰人 |
|---------------------------------------------|---------------|----------------|---------------|
| ① 짙은 갈증 | 5 (31.25%) | 17 (43.58%) | 6 (42.86%) |
| ② 음수량 증가 | 4 (25.00%) | 13 (33.33%) | 3 (21.43%) |
| ③ 多尿 (소변량의 증가 혹은 짙은 소변) | 2 (12.50%) | 13 (33.33%) | 6 (42.86%) |
| ④ 피로감 혹은 전신권태감 | 5 (31.25%) | 19 (48.72%) | 7 (50.00%) |
| ⑤ 공복감 (식욕항진) | 1 (6.25%) | 8 (20.51%) | 3 (21.43%) |
| ⑥ 체중감소 | 3 (18.75%) | 8 (20.51%) | 4 (28.57%) |
| ⑦ 팔이나 다리의 저림 및 감각저하 (쥐가 잘나거나 좌골신경통 등 증상) | 5 (31.25%) | 10 (25.64%) | 7 (50.00%) |
| ⑧ 시력장애(눈이 자주 가렵거나 백내장과 같은 안과질환) | 2 (12.50%) | 4 (10.26%) | 2 (14.29%) |
| ⑨ 땀이 많아짐 혹은 식은땀 | 2 (12.50%) | 7 (17.95%) | 1 (7.14%) |
| ⑩ 피부(항문, 음부, 전신 등)의 가려움이나 습진등의 피부병 | 3 (18.75%) | 4 (10.26%) | 1 (7.14%) |
| ⑪ 생리불순(생리주기나 양의 불규칙 등) | 0 (00.00%) | 1 (2.56%) | 0 (00.00%) |
| ⑫ 성욕감퇴 등의 성능력 부전 치주질환 (잇몸염증, 잇몸출혈 등) | 2 (12.50%) | 7 (17.95%) | 2 (14.29%) |
| ⑬ 기타 | 1 (6.25%) | 2 (5.13%) | 0 (00.00%) |

았다. (Table 16)

④ 소변

소변량에 있어서는 대부분 '정상'(32건, 40.51%)이거나 '마시는 물만큼 다소 많이 나온다'(28건, 35.44%)고 하였고, '소변량이 적다'(14

건, 17.72%)는 경우도 다소 있었다. 그리고 '마시는 물보다 소변량이 더 많다'는 경우는 太陰人(4명, 9.09%)와 少陰人(1명, 6.25%)에게서만 조금씩 나타났고 少陽人은 없는 특이성은 보였다.(Table 17)

Table 17 소변량에 관한 문항

(단위 : 명)

| | 少陽人 | 太陰人 | 少陰人 |
|---------------------------------------------------------|----------------|-----------------|----------------|
| ① 소변량이 적은편이다 | 3명 (18.75%) | 9명 (23.08%) | 2명 (14.29%) |
| ② 소변량은 정상적이다 | 8명 (50.00%) | 17명 (43.59%) | 7명 (50.00%) |
| ③ 마신 물의 양만큼 소변으로 배설이 거의 다된다 (물을 마시면 소변으로 다 나가는 것 같다) | 8명 (50.00%) | 14명 (35.90%) | 6명 (42.86%) |
| ④ 마시는 물의 양보다 소변량이 더 많은 것 같다 | 0명 (0.00%) | 4명 (10.26%) | 1명 (7.14%) |

소변색깔에 있어서는 ①, ②, ④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질별로는 少陽人은 주로 맑거나 다소 붉은 편이며 탁하며 흰 부유물이 다소 나타나고, 太陰人은 맑거나 황색으로 간혹 탁하며 흰 부유물이 나타나고, 少陰人은 주로 맑고 간혹 황색이거나 탁하며 부유물이 나타난다고 하였다.(Table 18)

Table 18 소변색깔 (단위 : 명)

| | 少陽人 | 太陰人 | 少陰人 |
|------------------------|----------------|-----------------|----------------|
| ① 주로 맑은 편이다 | 6명 (37.50%) | 16명 (41.03%) | 9명 (64.29%) |
| ② 주로 짙은 노란색이다 | 3명 (18.75%) | 12명 (30.77%) | 2명 (14.29%) |
| ③ 주로 붉은 편이다 | 1명 (6.25%) | 2명 (5.13%) | 0명 (0.00%) |
| ④ 탁하며 흰 부유물 등이 자주 보인다. | 5명 (31.25%) | 6명 (15.38%) | 2명 (14.29%) |

(무응답 : 5 명)

2) 당뇨병과 동반되는 증상에 있어서

頻尿(소변을 자주 보는 것)에 있어서는 少陽人(5명, 32.25%)에 비하여 太陰人(19명, 48.72%)과 少陰人(7명, 50.00%)에게 자주 나타나며 특히 심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少陽人(2명, 12.50%)과 少陰人(2명, 14.29%)

에게서 다소 나타났다.(Table 19)

갈증이 심한 경우는 15명(22.39%)이 있었으며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는 20명(31.34%)이 있었다. 갈증이 심하다라는 질문에는 ②보통이다, ①아니다. ③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질별로는 少陽人은 ②①③ 太陰人은 ②①③, 少陰人은 ②③의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Table 20)

물을 많이 마시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②보통이다(32건), ③그렇다(18건), ①아니다(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질별로는 少陽人은 ②③④ 太陰人은 ②③①, 少陰人은 ②③①의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Table 21)

Table 21 물을 많이 마신다. (단위 :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4 (25.00%) | 7 (43.75%) | 4 (25.00%) | 1 (6.25%) | 0 | 16 |
| 태음 | 9 (23.08%) | 17 (43.59%) | 11 (28.21%) | 0 (0.00%) | 2 | 39 |
| 소음 | 2 (14.29%) | 8 (57.14%) | 3 (21.43%) | 1 (7.14%) | 0 | 14 |
| Total | 15 | 32 | 18 | 2 | 2 | 69 |

Table 19 소변을 자주본다.

(단위 :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3 (18.75%) | 8 (50.00%) | 3 (18.75%) | 2 (12.50%) | 0 | 16 |
| 태음 | 4 (10.26%) | 14 (35.89%) | 19 (48.72%) | 0 (0.00%) | 2 | 39 |
| 소음 | 0 (0.00%) | 7 (50.00%) | 5 (35.71%) | 2 (14.29%) | 0 | 14 |
| Total | 7 | 29 | 27 | 4 | 2 | 69 |

Table 20 갈증이 심하다.

(단위 :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4 (25.00%) | 9 (56.25%) | 2 (12.50%) | 1 (6.25%) | 0 | 16 |
| 태음 | 9 (23.08%) | 19 (48.72%) | 9 (23.08%) | 0 (0.00%) | 2 | 39 |
| 소음 | 1 (7.14%) | 10 (71.43%) | 2 (14.29%) | 1 (7.14%) | 0 | 14 |
| Total | 14 | 38 | 13 | 2 | 2 | 69 |

'가슴이 답답하며 상부(얼굴, 목 주위)로 열감을 잘 느낀다'라는 것에서는 18명(27.27%)가 있었다. '기침이나 가래'는 少陰人(4명, 30.77%)과 太陰人(8명, 21.62%)에게서 다소 나타났다.

'음식을 먹어도 곧 허기가 진다'는 증상은 少陽人 18.75%(3명)보다 少陰人 42.86%(6명)과 太陰人 29.73%(11명)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Table 22), '음식을 잘 먹어도 수척해진다'는 것은 少陰人 15.38%(2명)보다는 少陽人 25.00%(4명)과 太陰人 16.22%(6명)에게서 다소 나타났다.(Table 23)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는다'는 경

우는 적었으며, '허리나 관절, 다리에 힘이 없거나 시린 증상이 있다'는 경우는 少陽人(6명, 37.50%)과 太陰人(15명, 41.67%)에게도 많았으나 특히 少陰人(8명, 57.14%)에게 많았다.

'다리의 살이 빠지거나 무력감을 느낀다'는 少陰人(6명, 42.86%)에게 많았으며,(Table 24)

'땀을 많이 흘린다'는 少陽人(3명, 20.00%)에게는 적고 少陰人(5명, 35.71%)과 특히 太陰人(17명, 45.95%)에게 많았고,

'식은 땀 혹은 야간 수면시 땀을 많이 흘린다'는 少陽人(5명, 31.25%)에게 많고 太陰人(7명, 19.44%)과 少陰人(3명, 21.43%)에게는 적었다.

'피로와 전신 권태감을 많이 느낀다'는 전반적으

Table 22 음식을 먹어도 곧 허기가 진다.

(단위 :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7 (43.75%) | 6 (37.50%) | 2 (12.50%) | 1 (6.25%) | 0 | 16 |
| 태음 | 15 (38.46%) | 11 (28.21%) | 11 (28.21%) | 0 (0.00%) | 2 | 39 |
| 소음 | 3 (21.43%) | 5 (35.71%) | 3 (21.43%) | 3 (21.43%) | 0 | 14 |
| Total | 25 | 22 | 16 | 4 | 2 | 67 |

Table 23 음식을 잘 먹어도 수척해진다.

(단위 :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7 (43.75%) | 5 (31.25%) | 3 (18.75%) | 1 (6.25%) | 0 | 16 |
| 태음 | 21 (53.85%) | 10 (25.64%) | 6 (15.38%) | 0 (0.00%) | 2 | 39 |
| 소음 | 5 (35.74%) | 6 (42.86%) | 1 (7.14%) | 1 (7.14%) | 1 | 14 |
| Total | 33 | 21 | 10 | 2 | 3 | 69 |

Table 24 다리의 살이 빠지거나 무력감을 느낀다.

(단위 :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7 (43.75%) | 5 (31.25%) | 1 (6.25%) | 3 (18.75%) | 0 | 16 |
| 태음 | 21 (53.85%) | 7 (17.95%) | 8 (20.51%) | 1 (2.56%) | 2 | 39 |
| 소음 | 4 (28.57%) | 4 (28.57%) | 5 (35.71%) | 1 (7.14%) | 0 | 14 |
| Total | 32 | 16 | 14 | 5 | 2 | 69 |

로 많았는데 少陽人(7명, 43.75%)과 太陰人(19명, 51.35%)보다는 少陰人(9명, 64.29%)에게 특히 많았다.

‘호흡이 짧아 숨쉬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자주 있다.’는 少陽人(1명, 6.25%)과 太陰人(3명, 8.11%)에게는 적었고 少陰人(3명, 21.43%)에게서 다소 나타났다.

‘불면증으로 힘든 경우가 자주 있다.’는 少陽人(6명, 37.50%)이 太陰人(8명, 22.22%)과 少陰人(3명, 21.43%)보다 많았다.

‘몸이 자며 추위를 많이 탄다.’는 少陽人(5명, 31.25%)과 太陰人(11명, 29.73%)보다 少陰人(7명, 50.00%)에게 특히 많았다.

‘가슴이나 손바닥, 발바닥에 열감을 많이 느낀다.’는 少陽人(3명, 18.75%), 太陰人(9명, 24.32%), 少陰人(4명, 28.58%)이었다.

3) 당뇨병 발병전과 비교해 변화된 발병후의 상태를 묻는 문항.

‘소변량 혹은 소변횟수가 발병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少陽人(6명, 37.50%)과 太陰人(14명, 35.89%)보다 少陰人(7명, 50.00%)에게 많았으며 (Table 25), ‘발병이후 체중이 많이 줄었다’는 少陽人

(4명, 25.00%)과 太陰人(9명, 23.077%)보다 少陰人(6명, 42.86%)에게 많았으며(Table 26), ‘당뇨병 발생 2~3년 전부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늘었다.’는 少陽人은 전혀 없었으며, 太陰人(9명, 23.077%)도 적었고, 少陰人(6명, 42.86%)에게 많았다.(Table 27)

‘발병이후 식욕이 매우 좋아졌다.’는 少陽人(3명, 18.75%), 太陰人(5명, 12.82%), 少陰人(3명, 21.43%) 모두 적었으나 少陽人과 少陰人이 太陰人 보다 약간 비율이 크게 나왔으며(Table 28), ‘발병 전에 비해 발병 후 땀이 많아졌다.’는 少陽人(2명, 12.50%)과 太陰人(4명, 11.11%)보다 少陰人(3명, 21.43%)에게 다소 나타났다.

4) 합병증세 중에서 당뇨병을 진단 받은 이후에 생긴 증상

‘팔이나 다리의 증상’중에서는 少陽人(7명, 50.00%), 太陰人(25명, 64.10%)과 특히 少陰人(11명, 78.57%)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少陽人(7명, 50.00%), 太陰人(23명, 58.97%), 少陰人(10명, 71.43%) 모두 ‘팔다리의 저림(취가 잘나거나 좌골신경통 등의 증상)’이 많았으며, ‘감각 저하’는 少陽人은 없고 太陰人(2명, 5.13%)과 少陰人(1명, 7.14%)에게 조금 있었다. 시력장애는

Table 25 소변량 혹은 소변횟수가 발병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

(단위: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3 (18.75%) | 7 (43.75%) | 5 (31.25%) | 1 (6.25%) | 0 | 16 |
| 태음 | 10 (25.64%) | 13 (33.33%) | 14 (35.897%) | 0 (0.00%) | 2 | 39 |
| 소음 | 0 (0.00%) | 7 (50.00%) | 5 (35.71%) | 2 (14.29%) | 0 | 14 |
| Total | 13 | 27 | 24 | 3 | 2 | 69 |

Table 26 체중이 감소했다.

(단위: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5 (31.25%) | 7 (43.75%) | 2 (12.50%) | 2 (12.50%) | 0 | 16 |
| 태음 | 17 (43.59%) | 11 (28.21%) | 8 (20.51%) | 1 (2.56%) | 2 | 39 |
| 소음 | 2 (14.29%) | 6 (42.86%) | 4 (28.57%) | 2 (14.29%) | 0 | 14 |
| Total | 24 | 24 | 14 | 5 | 2 | 69 |

Table 27 체중이 증가했다.

(단위: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11 (68.75%) | 5 (31.25%) | 0 (0.00%) | 0 (0.00%) | 0 | 16 |
| 태음 | 20 (51.28%) | 7 (17.95%) | 9 (23.08%) | 0 (0.00%) | 3 | 39 |
| 소음 | 4 (28.57%) | 4 (28.57%) | 5 (35.71%) | 1 (7.14%) | 0 | 14 |
| Total | 35 | 16 | 14 | 1 | 3 | 69 |

Table 28 식욕이 좋아졌다.

(단위 : 명)

| | ① 아니다 | ② 보통이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무응답 | Total |
|-------|----------------|----------------|---------------|--------------|-----|-------|
| 소양 | 5 (31.25%) | 8 (50.00%) | 2 (12.50%) | 1 (6.25%) | 0 | 16 |
| 태음 | 12 (30.77%) | 19 (48.72%) | 5 (12.82%) | 0 (0.00%) | 3 | 39 |
| 소음 | 4 (28.57%) | 7 (50.00%) | 2 (14.29%) | 1 (7.14%) | 0 | 14 |
| Total | 21 | 34 | 9 | 2 | 3 | 69 |

少陽人(8건)과 太陰人(21건)보다 少陰人(13건)에게서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少陽人은 밤눈이 어두워지거나 백내장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太陰人은 눈이 가렵거나 밤눈이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少陰人은 전반적으로 모두 조금씩 많았다. 청각장애는 少陽人(8건), 太陰人(15건), 少陰人(6건)에게서 고루 나타났고, 땀의 이상에서는 '간헐적으로 식은 땀이 난다'는 환자(21명, 30.44%)가 많았으며, 특히 少陽人(6명, 37.50%)과 太陰人(12명, 30.77%)이 少陰人(3명, 7.14%)에게서보다 잦았다. '피부(항무, 음부, 전신등)의 가려움이나 습진 등의 피부병'은 22명(31.88%)에게서 있었는데, 少陽人(6명, 37.50%)과 少陰人(5명, 35.71%)이 太陰人(11명, 28.21%)보다 잦았다. 생리불순을 호소하는 환자는 매우 적었으며, 성문제에서 '발기부전'을 호소한 환자가 10명(%)이었고, 少陽人(1명, %)은 적었고 太陰人(6명, %)과 少陰人(3명, %)에게 다소 나타났다. '성욕감퇴'는 27명(39.13%)으로 주로 少陽人(9명, 56.25%)이 太陰人(14명, 35.90%)이나 少陰人(4명, 28.57%)보다 잦았다. 치주질환중에서는 잇몸염증을 호소한 환자가 21명(30.43%)로 다소 많았고 이 중 少陽人(7명, 43.75%)이 太陰人(10명, 25.64%)이나 少陰人(4명, 28.57%)보다

많았다. '체중감소'는 17명(24.64%)에게서 나타났는데 少陽人(3명, 18.75%)이나 太陰人(9명, 23.08%)보다는 少陰人(5명, 35.71%)에게서 잦았다.

Ⅳ. 고찰

糖尿病(DM, diabetes mellitus)이란 인슐린의 생물학적 효과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혈당의 상태를 의미하며, 당뇨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제 1형(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제 2형(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2가지로 구분한다.²⁸⁾

임상양상은 多食, 多飲, 多尿 등의 특징적 증상과 갈증, 피곤, 嗜眠, 전신권태, 무력감, 체중감소, 음부소양감,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이 있다. 그의 종기, 아구창 같은 감염을 받기 쉽고, 시력장애, 팔다리저린증상, 장딴지의 경련, 구취, 잇몸출혈, 성욕감퇴, 월경 이상 따위의 증세도 볼 수 있습니다.²⁹⁾

消渴은 消穀善飢하고 渴而多飲하는 疾病이며 消는 燒로 태운다는 뜻이며 渴은 口渴을 의미한다. 한 의학적 측면에서 당뇨병을 관찰하면, 그 발현하는 증상의 유사함 때문에 消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²²⁾ 이는 渴而多飲, 消穀善飢, 小便頻數 등의 소갈증상이 서양의학의 당뇨병에서 말하는 三多증상(多飲, 多尿, 多食)과 유사하고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이 消渴傳變證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³⁰⁾ 그러나 糖尿病은 고혈당상태 및 이에 수반되는 대사장애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질환이지만³¹⁾ 消渴은 당뇨를 포괄한 광범위한 證候군이다. 소갈은 인체 내부의 燥熱에서 기인된 소모성 만성질환이다, 그런 까닭에 소갈 당뇨병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병증이다.²⁹⁾

기존의 證治醫學에서는 消渴증상을 三消라 하여 上消는 渴而多飲, 中消는 消穀善飢 飲食倍常 身體瘦羸, 下消는 渴而尿數有膏油(綱目)로 분류하고²⁹⁾, 그의 形症으로 '肺消者飲一洩二'³²⁾라하여 渴飲多尿하는 肺消와, 善食而瘦하는 食飮, 그리고 強中, 蟲渴, 酒渴 口渴등으로 세분한 것과는 달리 東武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不同한 체질마다 不同한 이름으로 구분하였는데, 太陰人의 당뇨병을 二熱病의 燥證(燥熱病)이라고 하고, 少陰人의 糖尿病을 少陰病證의 食消라 했으며, 少陽人의 당뇨병을 上消, 中消, 下消로 구분하였다.³³⁾

李濟馬는 消渴病에 대하여 각 체질별로 發病의 樣相이 다음을 「東醫壽世保元」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중 少陽人의 消渴病에 대해서는 上·中·下消의 개념을 도입해 설명하고, 太陰人에 대해서는 飲一洩二하는 肺消의 증상을 위주로 燥熱을 論하였으며, 少陰人에서는 食消에 대한 증상을 論하였다. 그러므로, 「壽世保元」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少陽人은 전형적인 消渴증상(多飲, 多食, 多尿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증상이 발현되며, 太陰人은 肺消증상이, 少陰人은 食消 증상이 주로 발현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점에서 당뇨병 환자에 있어 임상증상의 특징적인 유형이 四象體質에 따라 분류 가능하리라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적 응용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저자는 이러한 가능성으로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을 조사하여 상관성을 보려 하였다.

1. 당뇨임상증상 설문

1) 초기 자각 증상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陽人 소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많아 少陽人에서 당뇨 초기 자각증상 발생빈도가 타 체질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른 체질도 대부분 초기증세를 유사한 정도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陽人은 上中消의 전형적인 당뇨증상을 특징으로 하므로 초기자각증상에서 三多증상의 비율이 타 체질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少陽人은 渴症>피로감>저림>多飲, 太陰人은 피로감>갈증>多飲>多尿, 少陰人은 피로감>저림>>갈증>다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少陽人은 전형적인 渴症이나 多尿같은 三多증상이 주로 보이지만, 太陰人과 少陰人은 피로감 혹 전신권태, 팔 다리 저림 등이 이보다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식 식욕

飲食과 食慾에 관한 문항 중 <당뇨병과 동반되는 증상>의 설문에서 '음식을 먹어도 곧 허기가 진다'는 증상은 少陽人은 '消穀善飢' 하고 少陰人은 '飲食倍常' 하여 식욕이 增加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少陽人보다 少陰人과 太陰人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발병후 상태>의 설문에서 '發病 이후 食慾이 매우 좋아졌다.'는 질문에 역시 少陽人과 少陰人의 식욕이 增加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少陰人이 다른체질에 비해 약간 높을 뿐 차이가 없이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모두 적게 나왔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아 식욕에서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체중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 食消는 飲食倍常하고 浮腫'한다 했으나 少陽人은 먹는것에 비해 살이 안찌고 수척해진다 하였으므로 少陽人이 타 체질에 비해 체중감소경향이 클 것으로 기대했는데, '음식을 잘 먹어도 瘦瘠해진다'의 질문에는 少陰人보다는 少陽人이 많았으며, '발병 이후 체중이 많이 줄었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한 경우가 少陽人과 太陰人보다 少陰人(6명, 42.86%)에게 많았다.

東武는 食消를 浮腫에 포함하여 설명하므로 少陰人의 당뇨전 체중증가가 타 체질에 비해 높은가를 살폈는데, '당뇨병 발생 2~3년 전부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늘었다.'는 少陽人은 전혀 없었으며, 太陰人

(23.08%)도 적었고, 少陰人(42.86%)에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변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은 소갈에 소변은 언급이 없으나, 少陽人은 上消에 “渴 引飲常多 小便數而少”, 中消에 “消穀善飢 飲食倍常 不生肌肉 不蒸煩 小便數而恬”, 下消에 “渴而尿數 有膏油”하여 少陽人이 小便數하다 하였고 有膏油하여 소변자체에도 이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太陰人은 消渴病에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하여 마시는 양에 비해 소변량이 많아진다고하여 小便頻數이나 소변색질의 이상은 少陽人이 많고, 太陰人인 소변량에서 타 체질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頻尿에 있어서는 少陽人에 비하여 太陰人과 少陰人에게 자주 나타났으나 특히 심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少陽人과 少陰人에게서 다소 나타났고, 小便色에 있어서는 少陽人은 주로 맑거나 다소 붉은 편이며 탁하며 흰 부유물이 다소 나타나고, 太陰人은 맑거나 황색으로 간혹 탁하며 흰 부유물이 나타나고, 少陰人은 주로 맑고 간혹 황색이거나 탁하며 부유물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小便量에 있어서는 대부분 ‘正常’이나, ‘마시는 물보다 소변량이 더 많다’는 경우는 太陰人(4명, 9.09%)와 少陰人(1명, 6.25%)에게서만 조금씩 나타났고 少陽人은 없는 특이성은 보이고, 당뇨발병 이후에 ‘小便量 혹은 小便回數가 발병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질문에는 少陽人과 太陰人보다 少陰人에게 많았다.

5) 음수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은 飲食倍常이라는 말만 있고 갈증이나 음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少陽人은 “渴而尿數을 큰 특징으로 하고, 太陰人은 “燥熱病 引飲 小便多 大便秘”한다 少陰人보다는 少陽人과 太陰人이 갈증의 비율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갈증이 심한가’의 질문에 ‘아니다’, ‘보통이다’ (69명중 52명)라는 대답이 많았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少陽人은 18.75%(3명), 太陰人 24.32%(9명), 少陰人 21.43%(3명)로 나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 ‘물을 많이 마시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니다’ ‘보통이다’(69명중 47명)라는 대답이 많았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少陽人은 31.25%(5명), 太陰人 28.21%(11명), 少陰人 28.57%(4명)로 나와 少陽人인 타체질에 비해 다소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왔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뇨초기증상에서는 少陽人은 전형적인 渴症이나 多尿같은 三多증상이 주로 보이고, 太陰人과 少陰人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팔다리 저림, 전신권태, 피로감 등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음식 식욕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곧 허기가 진다’ ‘發病 이후 食慾이 매우 좋아졌다.’는 문항에 少陰人이 다른 체질보다 비교적 높게 나와 少陰人이 飲食倍常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체중에서는 ‘음식을 잘 먹어도 수척해진다’는 문항에는 少陽人, ‘당뇨병 발생 2~3년 전부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늘었다.’, ‘발병 이후 체중이 많이 줄었다’는 문항에서는 少陰人이 比較的 높게 나왔다. 이는 少陽人은 消穀善飢 飲食倍常 不生肌肉하고, 少陰人의 食消는 飲食倍常 浮腫이라는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소변문항에서는 크게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 小便頻數에 있어서는 少陽人에 비하여 오히려 太陰人과 少陰人에게 자주 나타났으나 특히 심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少陽人과 少陰人에게서 다소 나타났고, ‘마시는 물보다 소변량이 더 많다’는 경우는 太陰人(4명, 9.09%)와 少陰人(1명, 6.25%)에게서만 조금씩 나타났고 少陽人은 없는 특이성은 보였다. 음수에서는 少陽人의 多渴하고, 太陰人은 引飲이라는 특징적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즉 少陽人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당뇨병의 증세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한의학에서 말하는 상소와 하소의 증상이 많음을 볼 수 있고, 太陰人은 당뇨와 함께 다양한 경증이 나타나면서 폐소의 증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고, 少陰人은 식소와 함께 허로의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뇨병은 그 임상증상이 다양하나 서양의학에서는 인슐린의존에 따라 I형 II형을 위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체질에 따른 차별화 된 치료

및 관리가 요구된다. 저자는 이러한 필요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고, 추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당뇨병환자의 사상체질에 따른 새로운 유형을 설립하기 위하여 당뇨병환자 69명을 대상으로 사상체질분류를 하고, 당뇨 임상증상 설문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당뇨초기증상에서는 少陽人은 전형적인 渴症이나 多尿같은 三多증상이 주로 보이고, 太陰人과 少陰人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팔다리 저림, 전신 권태, 피로감등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식 식욕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곧 허기가 진다’ ‘發病이후 食慾이 매우 좋아졌다.’는 문항에 少陰人이 다른 체질보다 비교적 높게 나왔다.
3. 체중에서는 ‘음식을 잘 먹어도 수척해진다’는 문항에는 少陽人, ‘당뇨병 발생 2~3년 전부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늘었다.’, ‘발병이후 체중이 많이 줄었다’는 문항에서는 少陰人 比較的 높게 나왔다.
4. 소변문항에서는 크게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 小便頻數에 있어서는 少陽人에 비하여 오히려 太陰人과 少陰人에게 자주 나타났으나 특히 심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少陽人과 少陰人에게서 다소 나타났고, ‘마시는 물보다 소변량이 더 많다’는 경우는 太陰人(4명, 9.09%)와 少陰人(1명, 6.25%)에게서만 조금씩 나타났고 少陽人은 없는 특이성은 보였다.
5. 음수에서는 少陽人의 多渴하고, 太陰人은 引飲이라는 특징적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뇨병에서 사상체질에 따른 임상유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I. 참고 문헌

1. 송일병: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사상사, 1996
2. 송일병: 성인병과 사상체질의학, 대한한의학회지, 4(2), 16, 1993
3. 박인범: 성인 당뇨병의 조의학 변상논치의 초보적인 연구토론, 사상의학회지, 6(1), 47, 1994.
4. 강석봉: 消渴의 전변증과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에 대한 비교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2), 137-152, 1998.
5. 고경덕 외3인: 消渴傳變症에 관한 고찰 (중풍 병리와외 상관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8(2), 40~50, 1997
6. 백정한 외 : 消渴의 원인과 분류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산대동서의학
7. 김영희, 채우석: 消渴의 병인병기와 침구치료에 관한 문헌적고찰,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 7(95.8) 269-285
8. 장인규: 消渴에 대한 문헌적 연구, 東西醫學, 24, 94-101, 1985
9. 박헌재: 消渴(糖尿病)의 개념과 그 치료에 관한 관견, 醫林 121, 1-10, 1977
10. 송효정: 消渴屬腎의 병인 병리 및 치료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2(1), 9-30, 1991
11. 강석봉: 糖尿病性 신경증에 대한 치료 2예, 대한한의학회지, 13(2), pp.22~25. 1992.
12. 강신효: 消渴증(당뇨병)의 치료예, 대한한의학회지, 4(2), pp.94~95. (1983,10)
13. 김완희: 消渴에 응용되는 白虎湯이 Alloxan 糖尿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 774-775, 1979.
14. 허종희: 加味六味地黃湯이 Streptozotocin 白鼠의 혈당량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한의대 논문집, 149-150, 1984
15. 이용정 : 消渴에 應用되는 黃耆湯加味方이 KK mouse의 代謝機能에 미치는 영향 .서울 慶熙大學校, 1985
16. 안동준 : 사상체질과 당뇨병, 사상의학회지. 6(1), 41-45, 1994

17. 김복남, 현설매: 당뇨병에 대한 四象醫學論述과 中醫學論述의 비교연구, 사상의학회지
18. 황성주 : 白虎湯으로 少陽人 消渴병을 치료한 경험. 사상의학회지 6(1) 1994. 69-70
19. 고기덕, 홍순용: 少陽人에 응용되는 忍冬藤地骨皮湯이 streptozotocin 투여, 高血糖 白鼠에 미치는 영향. 사상의학회지 2(1), 149-164 1990
20. 홍성범, 홍순용: 少陽人에 사용되는 涼膈散火湯이 백서의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 사상의학회지 3(1), 201-216, 1991.
21. 엄득자: 糖尿病 治療 3例, 사상의학회지. 6(1). 7-10. 1994
22. 김지영, 고병희: 체질별 식품표에 근거한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당뇨병 (1800kcal)의 초보적 제시, 사상의학회지 8(1), 395, 1996
23. 김용국 외 2인: 당뇨병의 심신의학적 측면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1(1). 61-66. 1989
24.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1보, 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8(1), 146-160, 1987
25. 이의주 외 2인: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査紙(I)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7(2), 89-100, 1995
26. 김선호 외 2인: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8(1), 187-246, 1996
27. 이정찬 외 2인: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에 대한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8(1), 247-294, 1996
28. Rachael Hough, Ifrikhar UI Haq : <Crash course interal medicine> 내과학, 서울. 한우리출판사 311 2000.7
29. 신재용: 한방신계내과학 '糖尿病과 消渴', 서울. 성보사. 16-17, 58, 89, 1995
30. 강신대 외 2인: 동의보감 소갈문에 수재된 처방들의 혈당강하효과에 대한 초보적 檢索 대한한 의학회지 19(1) 27-37 1998
31. 김웅진 외: 당뇨병학, 서울 , 고려의학, 391-468, 1992
32. 왕기 :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82, 1981
3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207, 1997